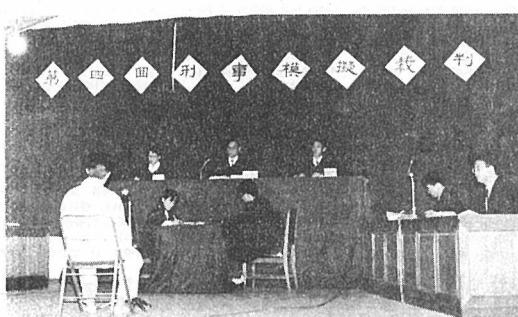


중성한 결실로 다져지는 학술행사

—「법과대학 학술제」 중 공법학회, 형사법학회 행사 내용을 살펴본다



는 제1주제 「한국방송 방송의자유」, 제2주제 「세계 방송법체계론」, 제3주제 「한국방송법체계」, 제4주제 「한국방송법」을 중심으로 본 방송구조법으로 나누어 방송의 현상과 개정방송법을 전면적으로 고찰했다.

그동안 지난 7월에 임시구회에 서 날치기 통과된 방송관제법의 내용을 주로 다른 제4주제 「한국방송법」으로 본 방송구조법으로 대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.

개정방송법의 주요내용은 첫째, 민영방송의 허용, 둘째,

방송위원회의 권한 대폭강화

셋째, 주제로는 주제로 실

모의제작 「경찰관의 죽기」 사용

의 범위와 한계,라는 주제로

각각 학술 행사를 개최한 바

공법학회 학술심포지엄

이어서는 법과대학 공법학회

와 형사법학회의 행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.

이번 개정방송법이 갖는 문

제1호는 정부집행수단으로

이용하는 정부 방송광고 음악

의 현실적 가능성과 민영방

송의 허용으로 말미암은 구조

의 허용으로 인한 이용자

도구자체로 경찰관의 제작비를

증가시킨다는 점이다. 그리고

29일(월)부터 개

최종심포지엄은 「현법상 방송의

자유와 개방방송 관계법」과

한국의 학술과 31일(수) 무

한국의 학술과 31일(수) 무</

